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 환경선교주일** :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환경선교주일입니다.
- 동호회** :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12:30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 교사세미나** :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오후 1: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 초록장터 수익금** : 지난 초록장터의 수익금 250만원을 쓰임교회(이재훈 목사)에 후원했습니다.
- 마늘 주문** : 단양 유암교회 교인들이 재배한 무농약 마늘 주문 받습니다.
- 한지형 옥쪽마늘** 3kg 38,000원(크기 2.8cm 이상) 입니다.
- 신앙실천** : 가정, 사무실, 공장의 절전을 생활화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삼하 1:17-27 / 시 130	2부	요엘 2:18-27
예배	고후 8:7-15 / 막 5:21-43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장미경 이영아 김세진 송동준
 다음 주 식당봉사 : 강순배 국지연 서안나 류형민 이용석 강경화 성귀옥 이민범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유치부, 아동부 교사
 떡 대 접 : 박병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3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8. 거룩 거룩 거룩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요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속히 물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전염병에 걸린 환자와 그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에게 힘을 주십시오. 전염병의 기운이 잦아들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멸종되어가는 동식물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설과 같은 이상기온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못 생명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5:17 인도자

♣ 교 독 문 113. 자연과 환경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대표기도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77.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 함께

♣ 성경봉독 I. 삼상15:34-16:13 고후5:6-10 막4:26-34 ... 이자애 선생

II. 마 6:25-34 ... 박상준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주의 동산으로 찬양대

말 씬 I. 다시 씨를 뿌리며 김재흥 목사

II.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영님 국지연 김대영 이효심 김명하 오형일 김성한 조영순 김세진 김정길
 최숙화 김정진 김혜정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노우영 김지호 전해리 김필순
 문복순 박규석 박경선 박석희 조항미 박시내 박옥순 배삼순 백묘현 서원금
 송형운 하미림 원용일 최현선 유금주 윤영미 이미휘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승석 이은경 이인웅 오송경 이자영 임호성 장동훈 정은선 전인섭
 정두리 정선희 정영례 조지연 차혜심 노미향 최다미 최지현 최철수 박권희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허준호 홍복선 무명

감사헌금

김중수 이순정 김태정 문복순 박대웅 강지영 박미연 박성호 박정초 박종현
 송학진 신종례 신정훈 이은미 안정준 안현숙 양해일 이광재 이범석 류정욱
 이숙자 이치림 강상영 임명희 장동열 최윤주 천승호 최은실 한선희 무명10

생일감사헌금

안종일 정현주 이미휘 이한림 김명희 정복순

녹색꿈헌금

김정진 김혜정 김지호 전해리 무명2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백혜숙	정두리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심	서원금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심	박경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심	심
시온	권미숙	박미영	허정윤	배삼순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오복순	이봉옥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김필순	윤미경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이수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김희우	송양진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최숙화	최영혜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 나짐 히크메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환경부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만 보며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십니다. 우리들이 노력할 바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힘써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다 함께:	아멘. 너무 많은 시간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동호회	저녁성경연구 / 강의: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배동준 선생 김경연 집사

6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황현성 진정숙 이오복 김현주
	헌금위원	박홍재 유경순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

나는 세상이 '밀양 할매 할배'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밀양시 부북면·상동면·산외면·단장면,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에서 아직까지 한전의 보상을 받지 않고 버티고 있는 225세대를 말한다. 상동면 도곡마을 여든일곱 김말해 할매, 부북면 평발마을 여든일곱 김사례 할매부터 70대, 80대가 많고, 60대는 젊은 축에 든다. 권여섯, 이제 갓 손주본 고답마을 계육이까지도 어쨌든 할매 할배다. 다들 밀양에서 태어나 지금껏 농사짓는 사람들이지만, 부북면 이남우 씨나 단장면 고준길 씨 부부들처럼 건강 때문에 퇴직하고 요양차 전원 생활하러 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

'밀양 송전탑'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언론에 아주 가끔씩 나오지만, 우리는 매일처럼 밀양 송전탑만 생각하며 산다.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처럼 생각이 나고, 날 수밖에 없다. 집 바로 코앞에 첩탑이 들어서 있는데, 일어나도 보이고, 논밭으로 경운기 몰고 나가도 보이고, 버스 타고 시내 가는 길에도 보이고, 들어오는 길에도 보인다. 벌써 몇 달이 흘렀지만, 이게 아직도 우리는 너무 낯설고, 쳐다보기만 해도 천불이 난다. 밀양 송전탑만 생각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우리는 졌다. 10년간 싸웠는데 졌다. 첩탑은 다 들어섰고, 동네는 한전이 준 돈 몇 푼으로 그 돈 받은 사람과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으로 갈라져 있다. 지난 정월대보름에는 마을들이 다 갈라서는 바람에 마을 잔치는 거진 못했다. 우리 반대 주민들은 상동면 고답 농성장에 한데 모여 따로 놀았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억울하고 분해서, 첩탑 들어선 것만 봐도 천불이 나는데, 어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더니, 그 말이 맞다. 우리는

100명이 넘게 혼절하고 다쳐서 구급차 타고, 산꼭대기에서 헬기 타고 후송되었는데, 내 사지육신 붙잡고 팔목 비틀고 꼬집던 경찰들, "아가리에 똥물 쳐넣어야 한다"고, "땅치로 유리창 깨서 차 빼버리겠다"고 막말한 놈도,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주민을 연행하던 밀양경찰서 임머시기 그 놈도, 단 한 놈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 ...

나는 이 싸움을 하면서, 이 나이 되도록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밥만 먹고 산다고 다 사는 거냐, 버리지처럼 살아도 한 인생이고, 범강장달이 같은 자식 낳고 등 따시게 사는 것도 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몇년을 찬바람 시린 바람 한뼉잠 자며 고생은 했지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간할 줄 아는 게 사람이라는 거. 옳은 일에 몸 던지고, 돈 몇 푼에 정신을 팔아먹지 않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라는 거를. ... 지난 법정에서 우리 중에 제일 막내인 동화전 마을위원장 김정희가 젊은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송전탑을 내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아부지는 정의를 위해서 비굴하게 숨어있지 않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은 한전이 국가가 다 제공해 놓고 작은 재산만 목숨만 지키겠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한 우리들만 핍박하고 억압한다는 건, 이견 분명히 잘못된 세상입니다.

징역 10년, 50년을 때리더라도 이견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식들한테 우리들은 잘못된 게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아부지는 정당하게 행동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을 법정에서 듣고 있던 우리 할매 할배들이 다 눈이 빨갛게 되도록 울었지. 저 젊은 친구가 징역 5년을 구형하는 새파란 검사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말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 밀양 할매 할배,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한티재) 중에서